



정교회주보

제2432호

2023.8.6

한국 정교회 대교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02)362-6371 | Fax.(02)365-2698 | orthodoxkorea.org



성 미카엘 대천사 성당(사진)은 알바니아 남부의 베라트시에 있는 비잔틴 양식의 성당이다.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된 베라트 역사 보전 구역 안에 위치한 이 성당은 14세기에 건축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성당 규모는 비교적 작으며 가파른 바위 위에 돌이 있는 십자가형으로 지어졌다. 성당 내부의 벽화는 거의 남아있지 않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변모 축일

축일 조과 복음 : 루가 9,28~36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

- 축일 제 2 응송 178
- 축일 찬양송 178
- 축일 입당송 178
- 축일 시기송 178
- 사도경 : 베드로 후 1,10~19 (봉)552
- 복음경 : 마태오 17,1~9 179
- 축일 성모송 180
- 축일 영성체성혈송 180
- '우리가 참빛' 대신 축일 찬양송 178

네 자신을 경계하라

대 바실리오스 성인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두지 말고 자주 이 질문을 자신에게 던지라고 강조합니다.

- 1) 혹시 내가 생각이나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않았는가?
- 2) 혹시 나의 혀가 생각을 앞질러 입으로부터 온당치 못한 말이 튀어 나가지 않았는가?
- 3) 혹시 내가 부당하고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경계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 주위 것들에 대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창조자의 모습에 따라 만들어졌으므로 영혼과 생각을 가진 존재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육체와 감각은 우리 소유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영혼의 눈을 항상 뜨고 있어야 합니다.

'성서의 메아리' 중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다니엘 나창규 대신부



이 사야 예언자는 어둠 속에서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느님 구세주가 오시면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앞을 보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들을 것이라고 하셨다(이사야 35,4-5). 이는 예수께서 소경 두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어 볼 수 있도록 고쳐주시는(마태오 9,27-30) 구원의 시대가 다가올 것이라는 선포이기도 하다.

구원의 시대란, 구세주이신 예수님께서 죽음의 그늘 속에 묻혀있던 백성들에게 광명을 주기 위해 오신 것을 의미한다.

마태오 복음사도가 기록한 소경 두 사람은 참 하느님 구세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표한다고 교부들은 해석하셨다. 따라서 구원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눈을 뜨게 해 주셨기에 구세주 예수님을 믿고 그의 말씀을 따르는 일이 죽음의 터널에서 벗어나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길이기도 하다.

예수님께서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라 오는 사람은 어둠 속을 걸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요한 8,12)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빛이시기에 그의 말씀을 믿고 따르면 마음의 눈이 뜨여 구원의 길을 걷게 된다.

주님께서서는 또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셨다. 아기가 어머니의 배 속에서

태어나 새로운 생명을 얻듯이 우리도 세례를 받고 영적으로 태어나 영원한 빛 속에 살 수 있는 새로운 삶을 부여 받게 되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영원한 빛 속의 삶이란 다불산에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빛의 삶이다. 주님께서서는 얼굴과 몸이 너무도 하얗게 빛나서 제자들은 그만 겁에 질려 땅에 엎드렸지만 그분께서 보여주신 영광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베드로는 이곳에 초막을 짓고 주님과 살고 싶다고 고백한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두렵고도 신성한 변모를 보여주신 까닭은, 주님께 다가올 수난의 시간이 있을지라도 이 순간이 지나면 다시 영광의 시간이 올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시어 제자들에게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이다. 구세주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태어나신 것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면서 온갖 고난과 핍박과 두려움이 우리를 괴롭힌다 해도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믿음과 사랑으로 주님 안에서 살아간다면 다불산에서 변모하셨을 때 보여주신 그 빛에 우리도 영원히 주님과 함께 머물 수 있는 영광을 입게 될 날이 기필코 오리라 생각한다.

성서가 우리에게 주는 특별한 가르침 4

아타나시아 봉사자 엮음

잠언은 “사랑이 한결같은 것이 친구다”(17,17)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벗을 위하여 제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요한 15,13)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과 우정은 불가해한 방식으로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태초부터 사람은 우리 실존에 중요한 요소가 되는 우정으로써 남과 관계를 맺는 존재가 되도록 창조되었는데,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위한 하느님의 사랑을 서로 함께 나누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가 신뢰와 존중, 그리고 서로 간의 애정과 보살핌으로 이루어지는 관계를 만드는 방식인데, 그것은 마치 성부, 성자, 성령 성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신성 안에 나타나 있는 모습과 같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친구를 얻으려면 우리가 먼저 누군가의 친구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아, 종려나무처럼 우거지고, 레바논의 송백처럼 치솟아라.”(시편 92,12)

아타나시아 봉사자 엮음

성사도 바울로가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과연 우리는 세례를 받고 죽어서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 이와 같이 여러분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어서 죄의 권세를 벗어나 그와 함께 하느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십시오.”(로마서 6,4, 11)

만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그분과 함께 땅에 묻혔다고 확신할 수 있다면, 나의 영적 삶은 훨씬 더 단순하고 쉬워질 것입니다. 나는 모든 유혹에 대해, 또 오직 한 가지 꼭 ‘필요한 것’(루가 10,42 참조)에서 나의 주의를 흐트러트리는 모든 것에 대해 지금과는 다르게 반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라고 묻습니다. 그랬을 때 이에 대한 대답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어. 나는 주님의 무덤 안에 있어.’가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논쟁하고 싸우는 대신에 나는 나 자신을 처음부터 다른 쪽에 두는 것입니다. 곧, 죄를 짓게 하는 욕망에서 멀리 떨어진 곳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죄의 세계에 대해서는 죽고, 이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살아가는 영적인 모습으로, 모든 상황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구세주 변모 수도원 축일을 축하합니다

오늘(8월 6일)은 가평 구세주 변모 수도원 축일입니다. 축일을 맞는 수도원 공동체의 모든 분께 하느님의 은총이 항상 함께하시길 기도하며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소식

■ 전주 성당 세례 성사

지난 7월 30일(주일), 호주인 Panaiotis Makrilos와 Erasmia의 아기 Balentino가 암브로시오스 대주교 집전 세례 성사로 정교인이 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 영원히 기억하시리이다

지난 7월 25일(화)에 엘레프테리아 이하심 교우가 안식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고인의 영혼에 평온한 안식을 주시길 기원합니다.

■ 울산 성당 학생회 성화 제작 방문

지난 8월 1일(화)에 울산 성 디오니시오스 성당의 요한 박인곤 신부의 인솔로 신데즈모스와 학생회가 전주 성모안식성당을 방문하여 성화제작 과정을 직접 보면서 성화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배우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인의 가르침

과분한 삶

언젠가 한 사부가 너무도 가난한 수도자를 만났다. 그는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것들, 즉 음식과 옷조차도 제대로 없었다. 혹독한 추위가 맹위를 떨치던 겨울에도 그는 뽕뽕 언 수도처에서 골골로만 들어진 긴 짚단으로 만든 자신이 누울 바닥의 매트로 삼고 만든 덮는 데 사용했다. 당연히 그는 밤새 추위에 떨며 밤새도록 고생하며 지낼 수밖에 없었다.

한번은 사부가 가난한 수도자가 스스로 용기를 북돋우며 혼자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다.

“나의 하느님, 저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순간에 쇠사슬과 형벌의 나무에 발이 묶인 채 감옥에 갇혀 미동하기도 힘든 처지에 놓여있는지요. 반면에 저는 이 두 다리를 뻗고 누울 수 있고, 임금처럼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